

# ‘저비용 고효율’ 전환계획 기대이하

## 진단 조직개편 왜 무산됐나

내용 공개 후 잇단 후폭풍  
관광국·환경국 폐지 반발  
기획·정책 부서는 그대로  
현장 인력 감축 등에 발목

제주도가 11년만에 행정 조직을 축소한다는 방침을 마련했지만 제주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됐다. 조직개편안은 공무원수를 줄이고, 행정 조직을 축소하는 것이지만 행정 현장 부서 등 위주로 감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동안 조직 축소를 요구했던 도의회조차 이번 조직개편을 반대했다. 향후 행정 효율성을 담보한 조직개편안 마련은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부서 통폐합 계획 축소**  
제주도는 당초 ‘대국(大局), 대과(大課) 운영’을 기조로 유사·중복 기능의 부서를 통폐합하고, 국에는 4개과 이상, 과에는 4개팀 이상으로 하는 등 ‘저비용 고효율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따라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는 관광국을 문화관광

광국으로, 도민안전실과 교통항공국을 통합하는 등 현재 15개국·60개과의 제주도 행정조직을 13개국·58개과로 축소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관광국과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폐지 방침 등으로 도민사회와 제주도의회 등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도는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현재 15실국·60과에서 1국과 1과를 각각 축소한 14실국·59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행정시는 제주시는 1과를, 서귀포시는 1국·2과를 감축하는 당초 계획을 확정했다.

조직개편안이 당초 유사·중복 기능부서 통폐합 등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축소된 채 제주도의회에 조직개편안이 제출됐다.

**△“방향성 상실” 지적**  
제주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8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38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23명, 기권 4명으로 부결했다.

그동안 행정조직의 저효율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조직을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제주도의회가 조직을 축소하는 조직개편안을 반대한 상황이다.

이는 제주도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이 도민사회와 제주도의회가 요구했던 저효율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도의회에서 이번 조직개편은 통폐합 대상 부서가 대부분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민원 부서 등 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제주도는 도의회 의견과 도내 관광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관광국 폐지 방침 등을 철회했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안은 원희룡 도정 출범 정책과 및 담당관급 조직이 신설되면서 기존 실국과 업무가 중복된다고 꾸준히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반영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이경용 의원은 “컨트론타워가 너무 커지면 과부하되고, 결국 대도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며 “특별자치도가 가야할 방향은 기획·정책부서인 머리는 줄이고 사업·민원 부서인 손발은 늘리는 것이다. 제주도 분청 조직은 줄이고 행정시와 읍면동 등 집행부서의 조직과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 “다양한 정보 모아 고품질 육성 자료로”

JDC 환경과 농업  
공동 기획 새로운 가치 만든다

## 감귤 공공데이터 구축사업

JDC 디지털 뉴딜사업으로  
감귤 맞춤 데이터 사업 추진

(주)제우스·(주)이브이페이스 등  
첨단단지 기업과 업무협약



JDC는 제주감귤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데이터 수집 및 활용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도내 감귤선과장장. 자료사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제주대표 공기업을으로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감귤산업을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JDC는 공공데이터를 다수에게 제공하고, 이 데이터를 통해 제주감귤산업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에 활용하기 위해 ‘감귤 공공데이터 수집·구축 및 개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JDC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2020년 공공데이터 디지털 뉴딜사업’ 지원을 신청했다. 8월에는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 참여계획을 보고하면서 제주미래농업센터 사업을 연계한 감귤농가 고품질·맞춤형

데이터 수집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JDC는 올해 9월부터 감귤 관련 공공데이터 수집 및 구축 사업을 본격화했다.

JDC는 올해 9월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회사인 (주)제우스와 (주)이브이페이스와 함께 ‘청정제주 생명산업인 감귤산업 고수의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JDC와 제우스, 이브이페이스는 해당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는 동시에 예산 지원과 데이터 수집 및 구축 등의 역할을 맡는다. 또한 공공데이터 청년인재 육성사업도 함께 추진

한다.

JDC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품질·고수의 감귤 생산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수집·구축·제공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제주감귤산업은 JDC 등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업의 방향성도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JDC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미래농업센터 사업과 연계해 제주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제주지역 데이터 관련 기업육성 및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JDC는 기대하고 있다. <끝> 김용현 기자

## 도 고병원성 AI 방역 총력

제주도가 타지역 고병원성 AI 유입을 막기 위해 제주항 등에서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항과 공항 화물청사를 통해 들어오는 차량 및 반입물품에 대해 검역요원 21명을 배치하고 반입금지 가금류·생산물 불법반입 검색을 강화했다.

한편 16일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이달 10일까지 도내 가금류 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항원·항체 검사 결과 7903건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김은수 기자

## 관광공사, 도내 3곳 웰니스관광지 재지정

### WE호텔·허브동산·취다선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한 2017년과 2019년 추천 웰니스관광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재지정평가에서 제주도가 신청한 3곳 모두 재선정됐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WE호텔 웰니스센터, 제주허브동산, 취다선 리조트 3곳을 신청, 모두 재지정됐다.

재지정된 웰니스관광지는 한국

관광공사로부터 해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마케팅과 여행상품 개발, 외국 관광객 수용 여건 개선 등을 위해 2022년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웰니스관광은 건강과 힐링(치유)을 목적으로 관광을 떠나 스파와 휴양, 뷰티(미용), 건강관리 등을 즐기는 관광으로, 시장 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아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관광산업이다.

김용현 기자

## 서귀포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내년 1월부터 대상 단지 모집

서귀포시는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등을 보수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는 서귀포 지역 7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에 주차장, 관리사무소, 자전거보관소, 조정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을 보수하는 비용과 CCTV 설치 및 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사업 대상 단지를 모집할 계획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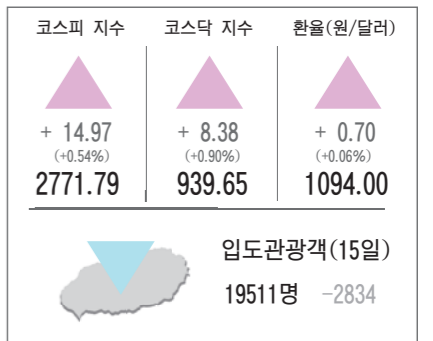
다.

지원 대상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총사업비의 50%까지, 49세대 이하 공동주택은 총사업비의 70%까지 이뤄진다. 다만 29세대 이하는 2000만원 이하, 50세대 이상은 최고 5500만원 등 세대수에 따라 지원 상한액을 제한한다.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았던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5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받은 사업이 같은 사업이거나 비슷한 사업이 아니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등을 공동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윤주형 기자



# 제주6차산업 인증 사업자분들의 좋은 소식을 축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3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10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 선정 국무총리표창	2020년 한국관광공사 코리아 유니크 배너 선정	2020년 제8회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최우수상	제2회 자청비 제주농촌문화상 농업경영부문	국제 슬로푸드협회 산하 슬로푸드 생물종다양성재단 ‘맛의 방주’ 등재	제10회 제주수출인의 날 수출 장려상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상(여성농업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상(유망가공)
양홍석 대표 농업회사법인(주)제주클린산업	김숙희 대표 제주샘영농조합법인	성주엽 대표 주식회사 청원(생각하는 정원)	홍은희 대표 제주한울영농조합법인(보름앗)	부정선 대표 제주물마루원정학교 영농조합법인	김희숙 대표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11호 제주소리술익는집	김영훈 대표 주식회사 일해	강미희 대표 비자림농원	김명수 대표 농업회사법인(주)태반의명제주

제주6차산업 인증 사업자분들의 좋은 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